

우리는 빛진 자입니다.



1997년 여름, 남태평양 피지로 단기선교를 떠난
 故강경식, 故권영민 두 학생은 원주민들의 식수시설 개선을 위한
 우물 만들기에 동참한 후 몸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순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피지에서 약 700여명의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에 빛진 자 아닐까요?

한동대 첫 입학생인 경식이를
 하나님께서 한동의 첫 순교의 열매로 받으셨습니다.
 경식이는 늘 선교하겠다고 말해 왔어요.
 경식이를 선교지에서 불러 가심은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 故강경식 군 어머니

*故강경식, 故권영민 군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피지광장과 기념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 참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 2) www.handong.edu 확인



세계관을 쉽게 설명할 때 자주 이용하는 비유가 안경이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갱게 보이고 초록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초록이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저런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바로 기독교적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비유란 항상 약점을 동반하는데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오해도 일으킬 수 있다.

당장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상대주의다. 기독교란 안경도 수많은 안경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아무도 안경 없이 세상을 볼 수 없다면 기독교란 안경을 껴야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가?

사실 세계관이란 이념이 처음으로 철학적 논의에 등장한 것이 상대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16-18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지배했던 계몽주의 사상은,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의 능력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세계를 보는 눈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성이라고 믿었다. 기독교적 안경이나 불교적 안경 같은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만약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폭로되고 제거되어야 할 오류라고 믿었다.

이런 확신이 19세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성은 절대적이 아니라 의지나 감정에 의하여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니체 같은 철학자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놀랍게도 니체는 종교개

혁 때 루터가 한 말을 반복했다: “이성은 창녀”라고. 루터는 스콜라 신학이 숭상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반면 니체는 계몽주의가 신봉했던 이성을 조롱한 것이다.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세계관(Weltanschauung)이란 용어가 언어학과 철학 논의에서 점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혹은 각 문화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적으로 형성한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은 20세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었다. 철학사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그것을 대변하고 사회과학에서는 문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그것을 반영한다. 캐나다의 이누이트(Inuit) 족 문화를 연구한 독일 태생의 미국 문화인류학자 보아스(F. Boas)는 “이누이트 문화는 서양문화보다 뒤떨어진 문화가 아니라 서양문화와는 다른 문화”란 주장을 내세워 오늘날의 문화 다원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효시가 되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모든 문화는 동일 선상에서 발전하되 합리성에 뛰어난 서양문화가 가장 앞서고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가 그 뒤를 따른다는 서양문화 우월주의(ethnocentrism)가 지배했는데, 보아스가 그런 편견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문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이제 전 세계의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유럽을 지배했던 인본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카이퍼(A. Kuyper)와 도어베르트(H. Dooyeweerd)도 그런 상대주의 기류와 전혀 무관할 수 없었다. 기독교, 불교 등만 종교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비롯한 모든 ‘주의(-isms)’에는 종교적 근본동기(ground motive)가 숨어서 작용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깥에서 보았을 때 역시 상대주의의 일종이라 할 수 있

다. 오늘날 우리가 펼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그런 사상적 흐름의 산물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상대주의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적 세계관도 역시 서로 다른 여러 세계관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데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만이 옳은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왜 옳은가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증명한다는 것은 모든 세계관들이 다 동의하는 제3의 중립적이고 절대적인 바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계몽주의가 주장하다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중립적이고 절대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고 믿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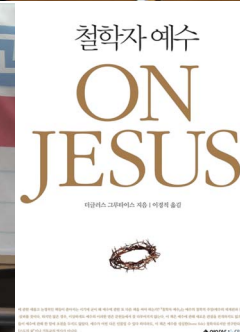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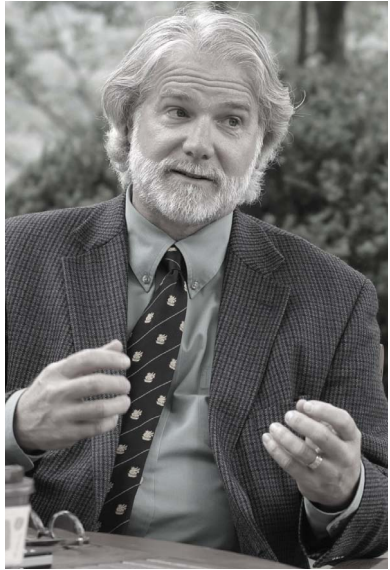
물론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하고 명시적으로 내놓을 것은 없고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중요한 목적도 아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며,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르침에 어긋난 잘못된 세계관,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제제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세계관은 내세도, 하나님도 부인하므로 철두철미 차세중심적(此世中心的)이고, 이런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으로 이끈다. 자연과학이 만들어 놓은 현대인의 세계관도 철저히 차세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대체로 유물론적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주로 이런 것들을 함께 발견하고 같이 고치며 조금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살고 활동하는 경건훈련이고 한국교회 개혁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DECEMBER · 2013



WORLDVIEW

2013년 12월호 WORLDVIEW 통권 162호



표지인물
코델 숄튼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모든 것에 질문하는 습관 _코델 숄튼 (인터뷰어 :이국운)

SPECIAL

- 14 학회특집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의 어제와 오늘 _송인규
- 17 학회특집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과 필요성 _신국원
- 22 학회특집 학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장난을 치라 _손봉호

COLUMN

- 02 대표주간 세계관과 상대주의 _손봉호
- 28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_신국원
- 34 성탄특집 대중문화의 힐링, 그 명과 암 _박진규
- 46 특집 분단을 넘어 _송영대

CULTURE

55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 38 서평 곰 두 마리 _이정규
- 42 서평 철학자 예수 _신상형

NEWS

53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호영
편집위원 김정호, 김지원,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황의서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번역 김성범 사진 신호영
디자인 황정희, 강새날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법을 가르치는 선생, 코델 숄튼(Codell Shulten) 모든 것에 질문하는 습관

☞ 인터뷰어 이국운 (한동대 교수)
번역 발렌티어 김성범 사진 신효영

한동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코델 숄튼(Codell Shulten) 교수를 동 대학,
같은 과에 재직 중인 이국운 교수가 만났다.

Question 이국운 현재 한동대 법학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셨는데요, 미국이 아닌 아시아권에서 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nswer 코델 숄튼 아시아에 와서 가르치면서, 동양과 서양의 교육 및 학습 전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은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서양은 그리스 철학, 특히 교수법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서양에서 교육 받은 저는 동양의 전통을 인정하고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는 다른 전통, 환경에서 자라고 배웠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로 학생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학습공동체에서 학생들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성장한 학생과 서양의 전통에서 자란 교수가 서로 존중하며 돕습니다. 저처럼 서양 전통에서 자란 교수들은 학생들이 학습공동체에 다양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학생과 교수가 함께 존중과 공감의 관계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유교적 전통 방식에서 자란 교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교수법을 매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 없는 자유로운 질문들을 통해 법이라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텍스트를 살펴보게 하면서 학생들이 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세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 새로운 법학 교육 방법은 모든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도교수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기초적인 관찰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돕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균형 잡힌 방안과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교수들은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더 온전한 방법을 구상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중시하는 지적 날카로움과 동양의 내적 인격 형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것에 소크라테스적 서양 사고방식을 통합함으로써 교육과 학습 환경 내에서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에서 미국 법을 가르치는 저의 경험으로 이 방식의 독특성과 적합성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이국운 미국 법의 정신적 뿌리는 무엇인지요.

Answer 코델 슐튼 미국 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하였습니다. 미국 법은 영국의 관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고대 로마의 법과 유대 율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율법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정의 집행과 더불어 관계에 근거한 자비를 미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정의와 자비의 필수적인 관계는 미국에서 법 집행 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정의와 자비의 완전한 관계는 기독교국가 법정신의 독특한 미덕을 보여줍니다.

Question 이국운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코델 슐튼 법과 관련된 직종에서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타인을 섬기는 것을 소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변호사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높고 숭고한 명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의명분은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과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고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에 관한 지식과 변호 능력을 충동원해서 별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며 타인을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라야 최고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이국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교수님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으신가요?

Answer 코델 슐튼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만의 교육방식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활용했던 교육방식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법에 관한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데 능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능력 있는 섬김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고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사고와 생각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이 질문에 답하면 저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질문이 무엇일지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의 사고방식은 한층 더 분석적으로 발전하고 날카로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진행하는 수업들을 마칠 때마다 학생들이 “모든 것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Question 이국운 학생들과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교수인 저는 학생들과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인격과 사고 형성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저의 교내 교직원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또한 매학기 한 번씩 주말에 학생들과 양양의 라브리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현재 탐구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했듯이,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Question 이국운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삶에서 부르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코델 솔트 저는 제가 한동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35년 전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면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법이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로스쿨에 들어갔고, 기독교 사립 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로 활동한지 10년 만에 교직에 복귀하여 미주리와 세인트루이스 두 곳의 대학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의 한동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대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 저의 삶에 그분의 부르심을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이국운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WORLDVIEW SPECIAL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기독교세계관과 학문,
어제와 오늘

조금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살고,
활동하는
경건훈련이
기독교세계관이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성공보다 실패가 대부분이었던 제 축구 이력을 집약한 말...
이 책을 통해 작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_이영표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활약한 한국 축구의 레전드, 이.영.표.
그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홍성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이영표·이승국 지음 | A5변형 | 12,000원

제30회 기독교 학문학회 기조강연 1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의 어제와 오늘

송인규 (합신대 교수, 동역회 이사)



30년 전에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은 어디서나 기독교세계관을 말한다. 그 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시기라 보고 기독교세계관의 양성회 활동하시는 두 분, 원로라 할 수 있는 두 분과 30여년을 되짚어 보면서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아마도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 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하다. 제임스 사이어의 책 『The Universe Next Door』를 당시 대학원생이던 참석 자들이 한 챗터씩 돌아가며 번역하고 토론하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며 변화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다. 지금은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이 름을 표방하는 많은 단체, 모임들이 있다. 기독교세계 관에 관한 번역서 및 국내저자들의 원 저술까지 다양한 서적들이 즐비하고, 기독교세계관이라는 말을 매우 보 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세계관의 최근의 처지를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을 담 아내다보도록 하였다.



현재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기독교세계관의 용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고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세 계관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말하 는 데 쓰기도 한다. 혹은 특정 분야/영역(문화, 직장생 활 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 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만일 “기독 교세계관”이 상기 어구들과 교호적(交互的)으로 사용 될 수 있다면, 왜 부득이 “기독교세계관”을 말해야 하 는 것일까? 또, 기독교세계관이 결국 이상의 어구들이 표현하는 바로써 충분히 커버된다면 왜 부득이 이 말 을 써야 하는 것일까? 만일 우리가 “기독교세계관”을 포기할 경우, 실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은 지 난 시간 기독교세계관을 강의해 온 본인 스스로에게 던 지는 질문이다.

두 번째, 과거부터의 지속되어 온 질문들을 되짚어 보 고자 한다. 내 기억으로는 2002년 즈음 기독교세계관 폐기론이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핵심 질 문으로 두 가지 사항이 있었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은 어느 특정한 신앙 전통(e.g., Reformed)과만 연관된 것 인가? 둘째, 왜 기독교세계관을 배웠는데 별 변화가 생 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기독교세계 관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기독교세계관을 제시하는 방식이 너무 명제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문제일까? 아 니면,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인가? 혹 은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끊임 없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과제

첫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기독교세 계관의 정체 확립은 아직도 필요하다. 기독교세계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명료하지 않 으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공동의 사명을 논하기 도 힘들다. 그리고 왜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알아야 하 는지, 기독교세계관을 아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 사 이 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기독교세계관을 알지 못할 경우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 다면, 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아 야 한다. 분명 기독교세계관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 의미가 있는 차이여야 이 운동을 하지 않겠는가?!

둘째, 기독교세계관과 개인·공동체의 변화가 문제이다. 왜 기독교세계관을 알아도 변화가 없을까? 물론 그 이 전에 더욱 근본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알면 변화가 있 어야 하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일지, 이에 대한 원인 규명, 진단 및 조치가 필 요하다. 이것은 실상 모두 기독교세계관의 정체와 연계 된 질문들이다.



셋째, “구조”와 “방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이 가진 특이점은 다른 기독교세계관 책들과 달리 자신의 주장점을 근거로 여러 가지 사안/주제/내용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 제시적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에 보면 성, 성령의 은사, 댄스 등 다섯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세계관적 분석과 대안 마련에 대한 힌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과 적용의 이론적 틀이 “구조”와 “방향”이라는 기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와 “방향”이라는 이론적 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일 이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이 책자는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만일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이 틀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 사안/주제/내용을 분석하고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새시대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MF)',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넷째, 기독교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는 모두 서양에서 온 것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 즉 과연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서양과의 차이점이나 서양으로부터 배울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세계관의 두 가지 저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세계관』을 자료로 하여 기독교세계관과 포스트모던적 기독교세계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고틀이 『세계관은 이야기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경 신학적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세계관의 표현도 좋은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 실정에서의 “기독교세계관” 확립이다. 서양의 책이나 자료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실정에 적실하고 이론적으로도 견실한 그런 연구에 혼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30회 기독교 학문학회 기조강연 2 기독교 학문의 가능성과 필요성

신국원 (총신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70년대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회를 책임지는 지성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83년 스튜디오 시작된 모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학문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정신에서부터 기독교대학, 대학 내 신우회 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다. 기독교 학문의 위상과 입지는 나아졌을까?

여전히 기독교 학문은 “터무니없는 생각(outrageous idea)”인가?

마스텐의 말처럼 기독교 학문은 여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일까? 기독교 학문은 학문의 중립성 신화가 깨어진 후에도 과연 가능한가? 과연 기독교적인 예술, 기업, 정치, 문화, 학문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사고를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고스톱이 가능할까? 이를 두고 토론한 적이 있다. 토론 끝에 나온 대답은 결박이었다. 판단에 욕심내지 않는다, 나중에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 등부터 압권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는 통성기도로 마무리한다 였다. 중요한 것은 두 기도와 기도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닐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독교 학문이란 세계와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앙과 학문을 잘 버무려 통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하나님의 주권을 편만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 학문은 그 기초와 목적이 세상과 다를 뿐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학자의 전인적 태도도 강조된다. 기독교 학문의 기초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 둘은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거장인 제임스 올타이스에 의하면, 세계관에는 “View of the world”의 차원(이해)이 있



기독교 학문이란
세계관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고 “View for the world”의 차원이 있다고 한다. 즉,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이자, 거기서부터 세계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면 기독교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관점이다. 세계관은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세상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있는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삶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인생(삶), 세상에 대한 조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은 이 세대가 조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 역할일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기본 관점인 ‘창조-타락-구속’의 원리를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학자라

면 학자의 소명인 학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칼빈은 성경을 자연인의 안목을 고쳐주는 안경이라 했으며, 레슬리 뉴비긴은 바라보아야 할(look at) 책이 아니라 통해서 봐야 할(look through) 책이라고 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이 안목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학자라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하고, 성경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of),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for)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에 기초해서 신실하게 학문(faithful scholarship)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학문의 이론적인 기초는 ‘변혁적’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다. 학문 위에 신앙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학문의 역사 속에서 바뀌어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철학적으로는 “내적 개혁”이라 한다. 학문 밖에서 별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문 속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학문의 특성상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칫 학문을 편파적으로 곡해할 수도 있는데, 학자의 태도를 포함한 신앙의 신실함은 물론 학문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신실함도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문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구의 태도와 방법이 기독교적인가 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기독교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그분의 통치와 영향력, 주권이 고백되고 실천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는 기독교 학문은 꼭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는 꼭 신학적인 것이 아니어도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

기독교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있었다. 헬라 철학과 문화를 배격했던 터툴리안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나고 했고, 반대로 클레멘트는 철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디딤돌이라며 무비판적 수용 태도를 취했다.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교양론』에서 이방 학문에서 진리의 보화를 “탈취”(spoliation)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이방 학문을 거부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활용할 것을 주창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현 상황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개념은 기독교 학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학문연구의 지식을 삶과 세상을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포괄적인 방식으로 보는 세계관과 연관시켜 조망하는 것이다. 즉, 학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성경적 비전에 맞추어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통합은 학문이 가진 추상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문이 삶과 연관되고 의미를 갖으려면, 신앙과 학문의 가정 사이에 공통성과 긴장을 밝혀내고 포괄하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연관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학회에 참여해야 한다. 학문이 지극히 다원화, 다양화를 지양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관점의 유관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 학문의 독특한 정체성이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학문은 항상 일반 학문과의 관계 속에 존재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학문의 회복은 우선 그 학문이 기초하고 있는 전(前) 학문적 전제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비롯된다.

학문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기초적 전제와 세계관을 비판하고 재구성하여 그것을 변혁하는 일은 단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반박하는 피상적인 작업으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 작업은 우선적으로 해당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들을 필요로 하며, 그 위에 기독교적 통찰과 대안적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하여 반박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학자, 교사로서 신실한 자세로 학문의 신실함을 추구하며 부분적이라도 꾸준히 파고들 수 있다면 대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학문은 원칙적으로 통합이라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탁월성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이를 위해 진지하게 학문을 뒤집어 봐야 한다.

학문적 탁월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신앙적 차원의 다원성 인정을 학문적 수월성의 차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와 평범한 연구 사이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기독교 신앙은 정당한 학문연구의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안경의 역할을 하기 위해 기독교적 “해방된 상상력”은 학문의 우상이나 독단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기독교 학문의 증진과 탁월성은 이미 시작되었고 존재한다. 마스텐처럼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며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학문적 풍토를 이겨내고 새롭게 유망한 방식으로서의 조망을 열어가면서 학문을 향한 가능성과 방향이 되는 것이 기독교학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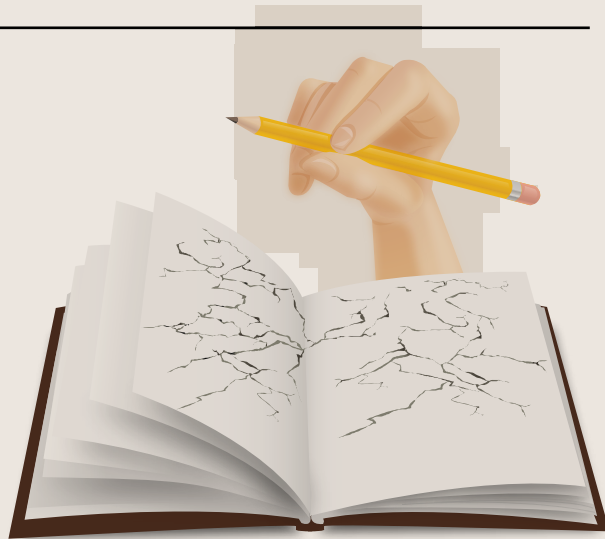
기독교 학문의 사명

아더 홈즈는, 통합은 하나의 이상(理想)이지 그것의 성취(achievement)가 아니라고 했다. 부르심(calling)이면 신실하게 임하면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에는 그 게임의 룰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 안에서 차이와 가능하면 탁월성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에는 자세, 태도, 동기 그리고 윤리규정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남에 대한 존중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영안 교수는 수월성과 탁월성이 없는 기독교 학문은 어떤 면에서 맛을 잃은 소금 같다고 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문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MP) 등이 있다.

학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장난을 치라



기조강연의 총평으로 본 단체 고문이자 지금도 한국의 기독학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시고 밀어주시는 Wesley Wentworth(IVP 고문) 선생님과 학자들의 멘토이자
본 단체 이사장이신 손봉호(고신대) 교수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세계관 문제나 기독학문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두 문제가 다 사실은 우리가 처한 세계와 역사적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원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관을 보면, 세계관이란 말은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학문적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미 그 자체가 상대주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학문은 이성의 절대성에 근거해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오직 하나, 이성의 눈이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아직든 모든 것을 충분히 모를 뿐, 학문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정확한 한 가지의 눈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이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고 소위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겨났다. 니체의 유명한 '이성은 창녀다'란 발언이 그것을 잘 대변한다. 놀랍게도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루터였다. 이성과 학문, 다 사실은 그리스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그리스 혹은 헬레니즘 문화는 처음부터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기독교와 학문

기독교와 학문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의 연합이다. 기독교는 우리의 확실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둔다. 그리스의 학문/종교는 확실성을 존재(being)에 둔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지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 철학과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조화되기는 어렵다. "기독교" "학문"은 불안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성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절대적인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는데 이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세계관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관점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학문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독교적"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세계관을 말하고 기독교적 학문을 말하는 것에 이미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상대주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관을 말하고 기독교적 학문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상대주의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솔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화가 상대주의적이라 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도 상대적이라 해서 안 된다. 비록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상대적이 아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렇다. 과연 주어져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세계관이다" 하고 내놓을 것은 없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지 주어진 현실이 아니다.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무관할 수 없다.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한국인이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다. 100% 성경적인 완벽한 세계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려면 한국 문화의 세계관이 어떻게 기독교적이지 않는가를 알아야 하고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 이념은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세계관은 철저히 차세중심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이란 관점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거기서 온갖 비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을 비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조금씩 바뀌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상일 것이다.

어떻게 학문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존재에 우리의 확실성을 둔다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독교적 학문에만 몰두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학문을 하나의 게임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한다. 장구나 바둑처럼 학문에도 룰이 있다. 우리끼리 약속한 룰대로 이루어져야 학문이라 한다. 쿤(Thoma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빌려 생각해 보자. 쿤은 과학의 패러다임은 바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이언스의 룰이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룰에 따라 학문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장기의 규칙이 실제 전쟁의 규칙과 같지 않지만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장기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장기가 실제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과학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룰에 따라서 열심히 학문활동을 하고 수월성을 나타내야 한다. 장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자연과 인간의 현실을 올바르게 보며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엄청난게 큰 도움을 주는 놀이이기 때문이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은 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오히려 더 창조적으로 학문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문의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알 수는 없다 본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학문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어떤 학문도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 없고 사랑, 죽음, 슬픔, 행복 등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설명해 주지 못한다. 사실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학문 밖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학문을 장난치듯 하

는 것을 권한다. 너무 몰두한다면 진정한 학문을 못하고 본다. 학문에 몰두하다 보면 연구의 대상이 아닌 승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학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이란 “관념을 가지고 유희”(play with ideas)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을 장난으로 하되 심각하게 장난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의미를 주거나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 그러나 가끔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교와 학문 두 가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하며 실험해야 한다. 칼 막스는 2학기 동안 그 시대의 다른 학생들이 20학기 공부할 것을 공부했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20배 더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세계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변혁이다.

한국에서는 세계관운동이 생긴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앙생활을 일관성 있게 하려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지성인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신앙과 학문, 삶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송인규 교수께서 세계관을 배웠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했다. 지식으로 아는 세계관은 그리스적이지 성경적 세계관이 될 수 없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세계관 운동도 삶의 운동이지 지식의 운동이 아니다.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삶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제30회 기독교학문학회 이모저모

이번 30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는 젊은 학자들의 학문과 차세대 연구자를 위해 “신진학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기독교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다.

대학원생 2개 분과와 기독교보건학회, 로고스경영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경제경영분과), 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철학/예술, 융합, 기독교세계관, 총 9개 분과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번 학문학회의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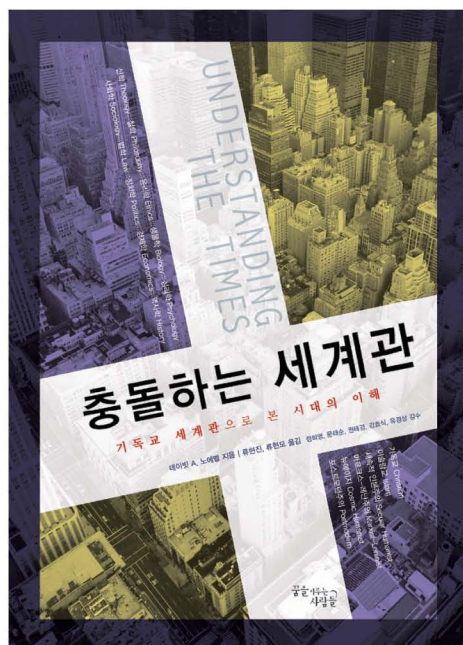
새로남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논문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기독교 학문연구회의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에 지난 1년간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하여 <새로남 신앙과 학문 우수논문상>을 시상했다. 제30회 기독교 학문학회 우수논문상은 숭실대학교 김인섭 교수의 <신앙과 학문> 18(3)에 실린 “윤동주 시 평가의 재조명 - 성서수용과 신앙발달단계를 중심으로-” 논문이 선정되었다.

또한 청년 기독교학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대학원생 발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심사하여 <새로남 청년발표우수논문상>을 시상했다.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생 박사 수료생인 이정규의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조명” 논문이 수상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꾼다”

기독교 세계관 커리큘럼 UNDERSTANDING THE TIMES(Summit Ministries)의 번역본



데이빗 A. 노에벨 지음 | 류현진, 류현모 옮김
정희영, 문태순, 권태경, 강효식, 유경상 감수
608면 | 정가 35,000원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

충돌하는 세계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김승욱 교수(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대표, 중앙대학교), 김성수 박사(고신대학교 총장), 김의원 교수(백석대학교 부총장), 성인경 목사(라브라공동체 대표간사), 신국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과) 추천!

저자 데이빗 A. 노에벨 박사는 1962년 세계관과 변증론을 다루는 사역 단체인 서밋미니스트리(Summit Ministries)를 설립했다. 그는 호프대학교와 텔사대학교의 학위를 지니고 있으며, 위스콘신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후보였다. 그는 작가, 편집가이자 대중 연설가이다. 그는 세계관 분석과 서양 문화 내의 도덕성과 영성의 퇴보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술한 책들을 썼으며 공동 저술하기도 했다.

기독교 세계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세계관들의 경쟁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기독교인과 기독 청년들이 비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념과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초래한 비성경적, 비현실적, 더 나아가 현실에 관한 비논리적인 가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모던주의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성경과 창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변론하는 일을 탁월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6개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진리 안에 자라게 하며, 거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또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다.

-서문 중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l.02)529-7722 |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성탄특집, 대중문화 읽기

대중문화의 "힐링", 그 명과 암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전하고픈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 나라.

오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해 보렵니다.



Q1. 하나님 나라...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구속은 새로운 삶의 질서요 소명이며 바른 비전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속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구속도 선물인 동시에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실천해야 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긴 회복되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인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취었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남녀 그리스도인 모두 하나님 나라 재건의 소명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뽑아 교회로 불러 모으시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전초기지요 훈련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흠여짐을 전제로 합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세상 속의 누룩과 빛으로 흠여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며,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복음의 진정한 성취는 어둠 속의 세계가 점차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과 폭력의 원리가 조금씩 생명과 살로의 원리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는 살로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노라면 해변으로 휴가 가는 것이 낯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혁명가들은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얼마나 생생하게 꾸며내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은 너무도 메말라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나 통일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과 초대교회 문헌에서는 이 두 단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천국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극락 같은 곳이거나, 하늘 저 너머 우주 한 모퉁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속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임합니다. 개인의 거듭난 마음과 몸이 그런 곳일 수 있고, 가정과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곳이고요. 학문과 예술과 정치와 경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엔 그 나라가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일해야 합니다. “내일 재림이 있을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임합니다.



Q2. '하나님 나라' 하면 꼭 저 하늘 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언제 임하나요?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한 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그 나라는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국토나 국민은 그대로지만 국권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잠시 지도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등을 했지만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올라간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광복을 통해 회복된 것은 국토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국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

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거나 이 세상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지요. 천국을 마음속에만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나치게 정신적이지요 내면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 또한 큰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왕권의 범위를 마음속이나 교회 울타리 안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회복의 목표도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두고 조바심을 냈던 것은 옛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0월의 재림 소문은 일반 언론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날 어떤 이들은 흰옷을 입고 모여 재림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자신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므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을 향하게 하는 열린 안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국 비전은 죽음에 압박해서만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결코 무기력할 수 없지요. 비현실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보다 훨씬 힘차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삽니다.

Q3. 매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속에 “그분의 발판을 세운 것”일 뿐이지요. 물론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not yet)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도 기다려야 할 소망 사이에서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이중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도 잘못되고 삶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미 임한 나라만 강조하면 현세적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생각에 자칫 혁명적인 자세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기다려야 하는 나라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내세적이고 비현실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대기소에 불과한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있으나 아직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크고 또 영원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임할 때까지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우신 기구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축소될 수도 있다면 역설입니다. 만일 교회가 능력과 자원을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정한 방법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선교와 일상 속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도자와 일꾼을 보낼 때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와 일꾼을 기르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일하고 싸우다가 펄박 받고 상한 심령들이 쉬면서 치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부터 피신할 은신처나 게토는 아닙니다. 사령부나 훈련소 방어가 유일한 전투라면 이미 진 전쟁입니다. 반면 전선이 훈련소나 본부에서 멀수록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의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Q4.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는 문고리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미국의 대중문화는 군사력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국적 가치와 생활 방식을 온 세상에 퍼트리고 있지요. 세계인의 입맛, 유행하는 의상, 심지어 성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미국 영화와 음악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을 감행해야만 주권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도 한류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지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불신 세계를 뚫고 들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요, 의며 평강의 힘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불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복음전도에는 사회와 문화의 변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심령이나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구속의 진리라는 렌즈로 본 세상은 더 이상 헛됨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그 눈에는 천국의 비전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진정하고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비전을 열어줍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IVP) 등이 있다.

2013년 한 해동안 연재되었던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은 12월호를 끝으로 마칩니다. 그간 섬겨주신 신국원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대중문화의 “힐링”, 그 명과 암

◎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작년부터 대중문화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힐링(healing)’ 열풍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힐링드라마”, “힐링무비”, “힐링뮤직”, “힐링서적”, “힐링푸드”, “힐링여행”, “힐링 비즈니스” 등등. 이제 힐링은 뒤에 무슨 말이든 붙일 수 있는 접두어처럼 쓰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SBS의 <힐링캠프>는 힐링이라는 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여러 게스트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신변잡기식 잡담을 늘어놓는 토크쇼가 주를 이룰 때, 캠프하듯 자연에 앉아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을 눈물과 웃음으로 풀어내던 신선한 포맷은 이제 토크 프로그램의 정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비소설로는 이례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헤민 스님과 관련된 뜨거운 반응에도 언제나 힐링이 따라붙는다. 그분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글에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힐링(healing)은 ‘치료’ 또는 ‘치유’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실 다른 어떤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기에 굳이 ‘힐링’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치료나 치유로는 채 설명되지 않는, 힐링이라고 해야만 전달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지금 우리들은 대중문화가 만들어내는 힐링이라는 말에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힐링은 상처, 부상, 질병으로부터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힐링은 물리적인 상처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건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마음의 상처, 감정적, 정서적인 아픔으로부터의 마음을 일컫는 말로 더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인 “위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치유문화(therapeutic culture)”라 하여 힐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가져온 삶의 각박함과 피로감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치유문화의 붐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오프라쇼>는 미국 대중문화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오프라는 힘겨운 삶에 지친 대중들의 절박함을 잘 간파해냈을 뿐 아니라 위로받고 치유받기 원하는 심리적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인물이었다. 그의 토크쇼에는 언제나 위로와 다독임, 용기,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러한 오프라 식 힐링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미디어 제국의 주인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힐링문화는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모든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인 것, 즉 그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힘겹게 만드는 사회구조와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 대신, 마음의 위로와 위안만을 제공하는 “값싼 힐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힐링문화는 어떨까? 우리 대중문화에서도 여지없이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힐링을 표방하는 대중문화 상품들 대부분이 개인의 감정을 대상으로 공감과 위로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공감과 위로는 꽤 힘 있어 보이지만 금방 허탈해지고, 또 다른 위로를 찾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우리 힐링문화의 전부는 아니다. 힐링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있다.

먼저 힐링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매우 지쳐 있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그리하여 현재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성과 위주의 경쟁주의 사회, 치열한 서열 다툼, 남을 딛고 일어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질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강요 받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힐링문화는 대중들에게 대안적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즉 힘겨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원리와 질서를 꿈꾸게 된다. 지금까지 외면했던 관용, 평등, 다양성, 공동체성 등의 가치들이 주도하는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힐링문화의 가장 큰 성과는 단순히 물리적, 심리적 치료를 넘어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데 있다. 온전한 힐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너무도 쉽게 무시해 왔던 종교적, 영적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 물질적 필요와 성취만을 앞세워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던 데서 벗어나 영적 필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노력이 사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세속사회가 힐링을 말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갈수록 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에 대중문화에서나마 힐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제도권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낮아져 가는 이 시대에 대중문화 속 힐링은 이제 우리 사회가 물질적, 세속적 가치에 절망하고 있고,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힐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되새기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힐링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세요!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검증된 교재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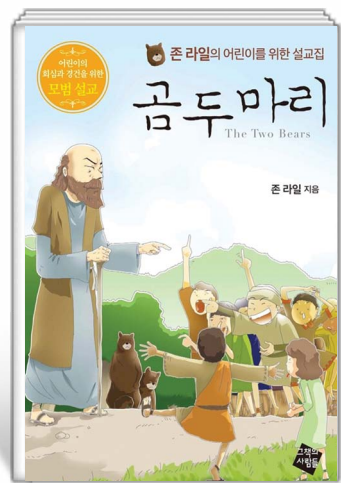
“하·영·공!”(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 세 글자를 외치면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 김선희 엄마교사(평내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 참석자)

■이 책이나 주말 세계관학교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자 직강 및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02)745-7231

어린이·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재
드디어 출간!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02)745-7231



존 라일 저 | 서금옥 역 | 그책의사람들

곰 두 마리

이정규

존 라일(1826-1900)은 경건한 개혁주의적 청교도였다. 가장 모범적이고 경건한 청교도가 어린이의 회심을 위해 남긴 설교 5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웠다. 100여 년 전 어린이 설교는 어땠을까? 어떻게 설교했을까? 5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작은 책은 얇고 가벼웠지만 각각의 설교 분량은 적지 않았다. 설교는 활자가 아니라 언어로 전달된다는 측면을 이해하면 분량의 많음과 반복되는 표현이 이해가 된다. 설교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소리 내어 읽고 듣자 예수님께로 오라고 어린이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라일의 열정이 느껴진다. 10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라일의 설교에는 현대 설교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 5편의 설교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회심을 위한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을 일찍 찾으라”는 제목으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전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 라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이의 영적 상태와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소녀와의 기차여행 예화에는 복음의 핵심과 더불어 어린이 회심을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두 번째 설교인 “진리 안에서 걸으라”에서는, 요한이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성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전한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진리를 알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한다. 라일의 설교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간절함과 감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어떠했을지 상상해 본다. 당시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설득되고 재촉 받았을 것이다.

모든 설교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성령께서는 설교자를 통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설교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지만 부드럽게 다독이시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라일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설득과 재촉하심이 느껴진다. 어린이들은 라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과 재촉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오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걸으세요!”

세 번째 설교인 “곰 두 마리”는 열왕기하 2장 23-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린이의 행동과 태도를 보시는 분으로 악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심판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전한다. 죄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현대 어린이 설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근대 사상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은 현 시대적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어린이 설교 안으로도 파고들어와 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대신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절박한 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가치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엡 2:8).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자격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복음의 가치와 선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라일은 그것을 어린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복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도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이해하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돌이켜야 한다. 라일은 인간 본연의 상태와 모습을 엘리사와 곰 두 마리, 한 그룹의 나쁜 어린이들을 통해 가감 없이 전하며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가치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엡 2:8)

네 번째 설교인 “작고도 지혜로운 것”은 잠언 30장 24-28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지를 전한다. 본문은 개미와 사반, 메뚜기와 거미는 작고 약하지만 지혜롭다고 말한다. 라일에 의하면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사반은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의 예비에 대해, 메뚜기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성에 대해, 거미는 목적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는 이러한 동물과 곤충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며 끝까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도 작고 약하지만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다(히 4:12).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린이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어린이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회심의 열매를 맺으신다. 라일은 말씀으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설교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설교인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에서는 요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울 일이 많은 장소와 울 일만 있는 곳, 절대 울 일이 없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일은 울 일이 많은 곳(지금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고 울 일만 있는 곳(지옥)에는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하면서, 절대 울 일이 없는 곳(천국)에 가기 위해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고 증거한다. 울 일이 많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라일은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와 표준이 됨을 강조한다. 이 땅에서 살면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일의 회심을 위한 어린이 설교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한 한 적게 우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 내용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울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장차 올 세상에서 다시는 울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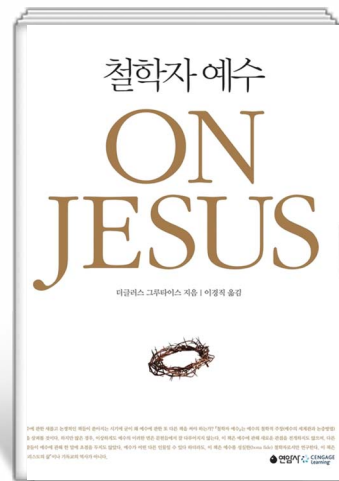
〈곰 두 마리〉는 존 라일이 어린이의 회심을 위해 전한 다섯 편의 설교를 모은 책으로, 현대 어린이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어린이 설교는 재미와 흥미를 위해 다양한 시청각적 방법과 기법을 동원하여 어린이의 눈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적 산만함은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든다. 반면 라일의 설교는 예수님계로 향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린이를 향한 구령의 열정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현대 교육에는 아동 중심, 흥미, 재미가 중심이 된 교육 방법과 기법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교육사상의 조류는 교회교육과 어린이 설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재미와 흥미에 따라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교회가 어린이의 전도와 구원을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어린이에게 맞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이유가 흥미와 재미 때문이고, 예배와 설교가 이렇듯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신앙과 영성은 성숙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없는 사랑만을 전하는 부드러운 설교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깊이 이해시키지는 못한다. 라일의 어린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믿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전하려는 한 경건한 사람의 헌신을 볼 수 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 라일이 말씀을 전할 당시 어린이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 순수하며 성경적인 복음의 강력한 선포, 그들(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려는 라일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개혁주의적 청교도의 영적 거인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이 우리 시대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어린이를 예수님 계로 인도하려는 어린이 설교자들에게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개혁신학연구원(M.div.)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보육학(M.ce.)을, 총신대학교원에서 기독교유아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장원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더글러스 그루타이스 지음 | 이경직 옮김 | 도서출판 연암사

예수는 훌륭한 철학자이다!

철학자 예수

신상형

읽기 전에

“철학은 어떤 방법으로도 말의 활용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철학은 그 법을 궁극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철학은 어떤 기초를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철학은 매사를 있는 그대로 놔둔다.” (『철학탐구』, 12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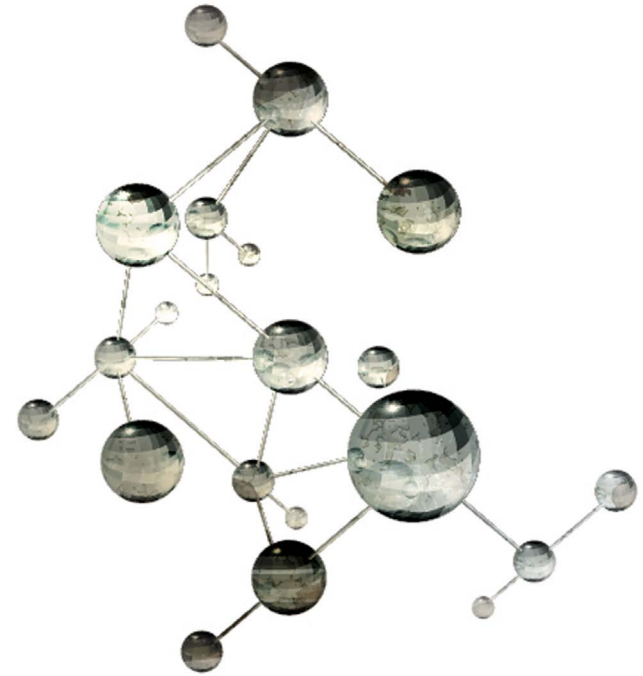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참 좋아한다. 철학의 역할을 가장 바람직하고도 말끔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철학을 오해하고 있다. 오해는 단순한 무지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이 기대와 욕심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식을 지성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철학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사고를 정지시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철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오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철학을 자기 맘대로 정의해서 이용하거나 배척해도, 사고가 이루어지는 한 본래의 철학은 사라지지 않는다. 철학과 사고의 관계는 말과 문법의 관계와 같다. 말의 폐해를 피해 고립무원의 수도원에서 정진하는 묵언수행자조차도 결국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말의 문법을 지켜야 하듯이, 사람은 사고를 해야 하고 그 사고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말 속에 문법이 있고, 문법은 말을 떠날 수 없다. 사고가 그 규칙에 해당하는 철학을 떠날 수 없고, 철학이 사고를 떠나 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문법과 철학적 규칙을 어긴 말과 사고는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문법과 철학은 말과 사고를 정확히 알려준다. 예수는 말씀으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깨우쳤다. 지식을 주기도 했지만 통찰력을 베풀어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있고 영향력을 주는 최대의 사고체계가 되게 했다. 이런 세계 최대의 보편적 진리의 수장인 예수를 철학자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물론 예수는 단지 철학자일 뿐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읽기 시작하면서

『철학자 예수』를 읽을 때 우리는 사실상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한다. ‘역사적 사건’이란 독자가 다른 저술을 읽을 때 하는 수동적 독서와는 달리, 그 논의에 가담하는 적극적 독서를 피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왜냐하면 독자는 신자건 아니건 간에 이제 저자(더글러스 그루타이스)의 주장을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그 주장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 ‘철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학 작업’이란 독자가 스스로 예수를 철학자로 규정하는 저자의 논증에 결국 찬반을 표하게 되리라는 뜻이다. 필자는 이참에 먼저 ‘예수는 철학자인가?’라고 묻고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독자 자신의 결론을 낸 뒤에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라고 권하고 싶다. 틀림없이 뿌듯한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읽으면서

적극적 독서가들은 목차를 보면서 흥미를 끄는 소제목으로 바로 달려가기를 독자들에게 권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만큼은 일단 제1장 〈예수는 철학자이었는가?〉부터 살피기를 제안한다. 아직도 예수를 철학자라고 규정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전문 학술논문이 아닌데도 저자는 ‘예수는 철학자이다.’라는 명제를 꼼꼼하고도 진지하게 논증하고 있다. 제1장을 천착해서 읽고 나면 나머지 장들은 수월하게 읽힌다. 그런 다음 이어서 예수 자신의 논증방식을 기록한 3장을 읽고, 건너 뛰어 8장을 읽고 나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적 범위와 방법의 탁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1장에서는 예수를 철학자로 보지 않는 견해에 대한 여러 선입견들을 다루면서 저자는 그런 편견의 조건들을 일일이 반박한다. 물론 선입견들은 철학자를 우위에 두고 예수를 그에 못 미치는 하수자라는 편견들이다. 첫째 조건은 예수를 방법론적으로 반성하고 자기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자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철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저자는 소크라테스와 니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들의 학의적인 기준을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저자는 추론상 무모순물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언변에 모순이 들어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람들과 맞선다. 예를 들어 예수의 가르침을 평화라고 정의하고는,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는 구절(마 10:34-39)을 평화를 얘기하는 구절(마 5:38-42)과 대조시켜 그 가르침을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층문법의 차이이지 문맥상 전혀 상호 모순적이지 않으며, 이런 대조적 구절들의 어느 것도 참된 모순관계가 아님을 일일이 입증한다.

셋째, 철학체계를 세워야 철학자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꾸로 철학체계를 해체하면서도 철학방법을 발전시킨 대가 비트겐슈타인의 사례를 통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저자는 논증한다. 이런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질서정연한 논리적 설명과 반대자들에 대해 이성적 논증을 펼친 예수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공격의 조건은 예수의 가르침이 예언적이거나 초자연적이기에 예수가 철학자가 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견해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낮추어 그럴 수도 있고, 예수를 성스럽게 여겨 그를 철학자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우선, 신의 영감을 받아 무엇을 말할 때, 왜 꼭 이전의 비슷한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우회적인 방법만 쓸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하면서, 저자는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진리를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듯 쓰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위 자명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예수가 철학자임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신자들을 향해, 성육신한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들과 철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감이라는 방법의 사용이 반드시 유일한 계시의 방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아스퍼스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방법이 최고의 설득력을 지닌 논증임을 예시함으로써 예수의 ‘좋은 논쟁’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예수의 역사성을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객관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을 전제로 저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예수에 관한 기록의 사실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철학자들의 허약한 역사적 고증과는 대조적으로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철학자가 예수임을 저자는 복음서의 특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복음의 텍스트 전승〉에서는 복음서의 원형이 다양한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그 원뜻이 재현됨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에 관한 외부 자료들〉에서는 수많은 사료들과 고고학적 유물들의 발견으로 그 사실이 여러 차원에

서 증명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음서의 솔직한 진술에서 보이는 사건들의 사실성으로 제고된 신빙성을 저자는 강조한다.

제3장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논증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논증의 과정에서 ‘명료하게 집중하고, 타당하게 대화하고, 도달된 진리를 기꺼이 따르려함으로써 논리와 논증을 존중하는 길을 택하는’ 우수한 논증가로서 예수를 묘사한다. 동시에 예수가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딜레마에 걸리자 뿔 사이로 피하고, 강이유 논증(더 강한 것로부터의 논증)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증거주의를 택하고, 귀류법 운영을 자유자재로 행사했음을 예시함으로써 저자는 예수의 논증의 풍요로움을 역설하고 있다.

제8장은 이 책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한다. 즉 예수의 철학이 단순히 기존의 철학전문영역에 갇혀있는 학문성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철학적 주제’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것은 철학이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황혼 녘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과거의 사실들만을 추스르는 과업으로 끝날 수 없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철학이 인간과 우주 및 역사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라면, 왜 예수의 정체와 십자가 죽음 및 부활의 통시적인 사건을 굳이 피해야 할까? 철학자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철학의 또 다른 차원의 범주를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를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제4장은 형이상학으로 모든 존재에 관한 예수의 관점을 다룬다. 다른 철학자들과 구분되는 예수의 태도는 모든 존재와 존재자의 문제(신, 인간, 초자연적 존재, 사후세계, 등)에 대해 분명하고도 깔끔하게 변론하지

회의나 중립적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철학이라고 반드시 회의적이거나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제5장 인식론에서 저자는 진술의 진리여부를 위한 정당성의 기준으로 사실적 증거와 아울러 비유를 통한 풍성한 증거의 방법들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인식지평의 확장을 주문한다. 제6장은 예수의 윤리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윤리〉, 〈하나님 나라의 덕들〉, 〈신적 의무: 의무론〉 등을 통해 철학의 범주들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제7장 예수의 여성관에서는 “그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걷는 길들에 관해 대화할 자격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겼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역설적으로 현대에서 여성사도가 없음을 심각하게 문제 삼음으로써 저자는 현대기독교인들의 닫힌 사고를 지적하고 있다.

읽고 나서

이 책은 얇지만 결코 작은 책이 아니다. 그저 짤을 내서 읽다가 말 책은 더더욱 아니다. 각 장이 논증과 고증으로 채워진 ‘묵직한’ 고전이다. 밑줄을 그어가며 생각을 정리해야 따라갈 수 있다. 한번 대결한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진지하게’ 섭렵하고 나면, 어지간히 두꺼운 책들은 하루 이틀이면 푹딱 해치울 정도의 자신감과 사고력의 심화



신상형 현재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서양철학 담당, 철학박사)이다.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독교철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기독교의 세계적 기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그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걷는
길들에 관해 대화할 자격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겼다

”

와 확장을 육성시켜줄 수준 높은 책이다. 만만치 않은 이 책이 유려한 문장으로 바뀐 데는 옮긴이(백석대 이경직 교수)의 능력과 노력 덕택인 것 같다. 〈읽을거리〉에서 동일한 주제의 책을 소개하는 것도 세련된 팁이다. 그러나 너무 진지한 논의와 무미건조한 서술은 이 책의 옥의 티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 책과 한 번 겨뤄보는 독자는 ‘예수의 철학’을 선물로 받으며 기뻐할 것 같다. 필자는 이 책을 덮었다 폼다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올해로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나 오랜 분단으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이해와 추구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분단국가"는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지금도 우리는 전시상황이다.

분단을 넘어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소장)

북한 체제의 미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때문에 무너지질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을 개발하려면 예산 대부분을 군사비에 투자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생경제 예산은 줄어들고 외국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결국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북한 체제는 붕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핵을 개발하면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안보 측면에서 완충지대로 생각해왔다. 즉, 남한의 미국 세력이 중국의 앞마당인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북한이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잘못해도 감싸주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이 그것을 명분 삼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한국도 자위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게 되고, 이어 대만도 핵무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외에 일본, 한국, 대만까지 핵을 갖게 되면 중국으로는 핵을 가진 다섯 나라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북한 붕괴는 시간 문제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북한이 망하면 통일이 될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네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의 광기 어린 행보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 충질을 하든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또는 민중이 봉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변 상황이 발생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처럼 내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내전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단계가 올 것이고, 유엔이 앞장서서 평화유지군을 보내거나 미군이나 한국군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0만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저항세력을 진압한 후, 핵무기를 찾아 폐기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과도정부를 수립, 후속 정권을 세워야 한다. 이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김일성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2의 공산 정권을 세우자는 것과 이번 기회에 민주 정권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할 때, 한국 정부는 민주정부를 세우는 쪽을 도와 북한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정부 수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내에 민주세력을 세울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는 민주세력을 세울 수 있는 5개의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지하교회, 둘째는 탈북자 가족과 친척들, 셋째는 상인 집단, 넷째는 장마당 세대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고, 자기 부모가 장마당에 가서 사고파는 것을 본 세대로 주로 30대 이하이며, 김정은 정권에 별 미련이 없다. 마지막 다섯째 그룹은 해외에 유학을 다녀온 세력이다. 그런데 이들 그룹은 전혀 세력화되어 있지 않으며 세력화하려는 의식도 없다. 이들 중 그나마 지하교회 교인들이 민주화 의식이 가장 강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하교회를 지금부터 도와 수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변의 다른 세력과 규합하여 민주화운동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에 수립된 민주정권은 한국 정부와 교류·협상을 통해 평화적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북의 민주정권이 한국에 편입되도록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차원을 넘어 북한에 민주 정권을 수립하고 남북통일을 이끌어내는 주도세력이다. 이것이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가치이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서두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3년 후인 2016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학자들은 이때로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통일비용을 약 176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한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외에, 북한의 재건을 위해 이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편익'도 생긴다. 즉 통일로 인한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에는 약 200종의 광물 지하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00조 원 정도이다. 또 북한에는 질 좋은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노임은 72달러, 약 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8천만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독일, 영국, 일본처럼 경제발전의 추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남한이 가진 자본력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만나고 여기에 8천만의 인구가 결합되면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하며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30년 후 통일한국의 경제력이 일본과 독일을 앞설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편익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도 있다. 그것은 민족 복음화이다. 2400만 북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또 남북한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갈 때,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기피할 일이 아니라 서둘러야 할 일이다.

통일은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독일의 예는 이를 뒷받침한다. 1989년 봄 서독의 콜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언제쯤 독일이 통일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못 볼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 6개월 만에 동서독 통일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통일 후 남북한 교회의 모습

영적,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겠다. 여호수아 3-4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 강을 건넌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흐르는 물이 멈추며 벽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다. 이는 중국의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언약궤라는 말씀을 품고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에는 일곱 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30만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김정은 왕국을 도는 것과 비슷하다. 머지않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김정은 왕국, 평양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확실한다.

평양성이 무너지면 북한 교회 재건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속신앙이 엄청나게 많다. 부적이나 점이 많고,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잔재도 남아 있고, 여기에 남한의 이단들도 들어갈 것이다. 또 남한 교회의 잘못된 폐색이 북한 교회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전략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의 방해가 잦았다. 그래서 방비를 세워 이를 막는 한편 각 부족별로 작업구역을 할당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다. 이를 본받아 북한 교회 재건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

새로 탄생할 북한 교회의 모습

새로 탄생할 북한 교회는 성령공동체로 탄생해야 한다.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크

로드를 따라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환란과 핍박 속의 지하교회의 간증은 놀랍고 충격적이고 신선한 감동을 줄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 부모 자식 간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이야기, 처형 직전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외치며 숨겨간 이야기, 찬송가 한번 실컷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한 그들의 간증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실크로드를 바이블로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1963년 8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광장에서 인종 차별 없는 미국을 만드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연설을 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이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처럼 개인이든 민족이든 꿈이 있는 자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꿈이 있다. 첫째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북한이 변화여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 둘째는 백만 성도가 참가하는 대부흥 집회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것. 셋째는 남북한 성도가 손을 맞잡고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복음 통일의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감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민지,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찬호, 김희원, 노주하,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보난이, **5천**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성범,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제우, 김 준, 김철수, 김태운, 김항아,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행연, 이향숙, 임선제, 임형준, 장한일, 전정진, 전종화, 전충국, 장법채,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홍현주, **7천** 김경희, 김병재,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은미, 김효태, 민수진,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승훈,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보경,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영남, 김영완, 김용석, 김우신,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정모, 김정일, 김정호, 김종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판임, 김현정,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호수, 나동훈, 남서희, 마민호, 박경원, 박기언, 박능안, 박두한,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호, 박현경, 박해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서유미, 성광원, 소중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송철호,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현주, 신헌균, 신희기, 신희영,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병국,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원선희,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해무, 유화원, 윤명심, 윤상현,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원배,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국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영희,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승희, 조은향, 조재천, 조해선, 주경식, 차봉준, 차정규, 천성민, 최삼열, 최세진,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정석, 황규영, 황도웅, 황세환,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이상훈,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김세광, 김요한, 김용식, 김원호,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윤, 박영혜, 배성민, 배은경, 백은미, 변우진, 오한나,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용규, 전광학, 조창근, **2만4천5백** 김태우, **3만** 강봉남,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지원, 문준호, 박강국,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배인교, 서성록, 양성만,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무성, 최용준,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 이정주,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문원중,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구, 김 원, 이종철, **10만** 김미영, 김원수, 김익원,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최태연, **12만** 유정철, **20만** 김승태, **30만** 김승욱

기관후원

1만 빛과소금교회, **5만** 개복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부천침례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열린교회, 예성교회, 자은교회, 주님의은혜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엘비전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3년 10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25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780,000		기타급여	429,000
	일반회비	3,822,500		소계	3,829,000
	기관후원금	5,2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후원
	기타후원금	1,000,000		사무실관리비	452,580
	월보구독료	597,000		통신비	374,210
				우편료	64,370
				소모품비	212,800
				비품	326,170
				식비	254,100
				복리후생비	876,010
				회의비	24,2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수입	소계	12,649,500		기타	183,285
	소계	338,520	기타	소계	2,987,725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3,500,000		세금 및 기타	44,000
	소계	3,500,000	미디어 아카데미	소계	44,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530,000		미디어강사료	800,000
	세계관기타수입	0		미디어기타	914,910
학회	소계	530,000	세계관 아카데미	소계	1,714,910
	소계	530,000		세계관강사료	7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세계관행사준비	237,800
	학술지심사비	280,000		소계	937,800
	학술지게재료	1,270,000		학회홍보및기타	382,470
	저작권료	1,180,193		학술지인쇄비	2,090,000
	소계	2,830,193		학술지발송비	474,960
당월 수입액		19,848,213	당월 지출액		13,000,865
전월 이월액		31,606,692	차월 이월액		38,454,040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3년 10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광고수입(월간)	1,6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500,000
				기타급여	0
				소계	1,500,000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110,000
				인쇄비 및 기타	2,133,820
				소계	3,443,820
	소계	1,650,000	발송비	발송비	929,580
				소계	929,580
기타수입	예수금	132,870	경상비	기장 및 통신비	270,000
				복리후생비	592,880
				식비 및 비품	289,600
				소계	1,152,480
	소계	132,870	기타	세금 및 기타	51,100
당월 수입액		1,782,870		소계	51,100
전월 이월액		19,757,470	당월 지출액		7,076,980
			차월 이월액		14,463,360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혁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간, 자연, 역사를 보고 그것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이 하나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 사 : 박상은(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합신대 교수), 이강인(엘비전 대표), 전광식(고신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감 사 :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실행위원회

위 원 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위 원 :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김태환(영지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신국원(총신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이간창(성균관대 교수), 장수영(포스텍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연구원장)

연구본부 연구본부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 장수영(포스텍 교수)
부학회장 : 국제협력_손병덕(총신대 교수),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교수), 학술_김태환(영지대 교수),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총 무 : 문준호(ACSI Korea) 감 사 : 김홍섭(인천대 교수)
학회이사 : 강영안(서강대 교수), 김홍섭(인천대 교수), 윤완철(카이스트 교수), 조무성(고려대 교수), 황호천(세종대 교수)
학회이사 및 : 경제/경영(한국기독교경제학회)_황의서(서울시립대 교수), 교육_박영주(아신대 교수), 문화/예술_서성록(안동대 교수), 분과학회장 : 법학_조영길(8S법무법인 대표), 사회복지_이상무(평택대 교수), 상담/심리_전요섭(성결대 교수), 역사_권태경(총신대 교수), 융합_이우성(STEP 박사), 의학_김지원(백석대 교수), 철학_양성만(우석대 교수)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이간창(성균관대 교수)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교수), 권정태(호서대 교수), 김경민(전남대 교수), 김동원(전북대 교수), 김정호(국립한밭대 교수), 배용수(성균관대 교수), 박신현(고신대 교수), 신현호(백석대 교수), 유지환(광동대 교수), 이의영(군산대 교수), 조창근(조선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세계관연구소 소 장 : 김중락(경북대 교수) 연구위원 : 이요한(말레이시아)

운동본부 운동본부장 : 조성표(경북대 교수)

세계관운동
대외협력위원회_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국제협력위원회_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중국사역위원회_정수균(선교사),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회_최용준(한동대 교수), 언론위원회_강진구(고신대 교수)

교육본부 교육본부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 신국원(총신대 교수), 부소장: 이승규(합신대 교수)
미디어아카데미 원장 : 조정민(BASIC Community Church 목사)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교수), 장유진(미코필름 PD), 유지은(PD)

교재개발위원회 위 원 장 : 최태연(백석대 교수)

월간 월드뷰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교수) 편집인 : 신효영

도서출판 CUP 대 표 : 김혜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 장 : 양승훈 전임교수 : 전성민 간 사 : 이계현
이 사 : 조영택(밴쿠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스 한인교회 목사), 김명준(밴쿠버 지구촌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험)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CTC 대 표 :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CMCA 프로덕션 PD : 장유진, FD: 최유리

사무국 사무국본부장 : 최현일(샘병원 연구원장) 대표간사 : 신효영, 간사 : 김고운, 홍정석

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으로 온라인 회원이 되시며, 일정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은 회비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종류	월 회비	E 매거진	월드뷰 (잡지)	신앙과학문 (동재학술지)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논문 투고자격	동영상 강좌	기부금 영수증
정회원	10,000원 이상	●	●	●	●	●	●	●
저널A	3,500원	●	●					●
저널B	5,000원	●		●				●
저널C	7,500원	●	●	●				●
온라인회원	-	●						

[납부방법]

1. CMS신청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회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자동이체 : 후원자님께서 직접 거래 은행에 가셔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좌입금 :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4. 연간회비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무국으로 문의 주십시오.

* 문의 02) 754-8004

제4회

DEW

기독교 세계관 캠프

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기간 2014.01.13-17 (월-금)
장소 한동대학교 교내



손봉호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말씀선교단 이사장,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이사장



최용준 교수
벤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VIEW)교수(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현) 한동대 GEA학부 교수
저서: <세계관은 살아있다> <응답하는 인간>의 다수



신국원 교수
현) 총신대 신학과 교수
미국 엔아버 성서교회 담임목사
저서: <니고데모 안경(침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수



진광식 교수
현) 고신대 신학과 교수
분당 독수리중고등학교 이사장
저서: <신학의 길, 신학함의 길>
<칼빈과 21세기:칼빈탄생기념서>의 다수



김승욱 교수
기독교세계관 학술통역회 공동회장
국민일보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 본부 정책지원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및 대표 역임
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최태연 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철학박사
기독교세계관 학술통역회 실행위원
한국기독교철학회 연구이사
현) 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기독교철학 전공)
저서: <종교개혁과 미학>의 다수



강진구 교수
크리스천 문화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행위원
현) 고신대 특수선교 학부 교수



한윤식 교수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
Wake Forest University 의대 박사과정 졸업
한동대학교 교무처장
한동대학교 학문과 신앙연구소 설립
한동대학교 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 설립
현) 한동대 전산전자학부 교수

강의 주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창조, 타락, 구속, 완성)
기독교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기독교 세계관과 기술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기독교 세계관과 경제
기독교 세계관과 미디어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

*기독교세계관 학점으로 인정 가능

신청방법

이름, 나이, 성별, 소속, 연락처(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학점수강여부, 기숙사신청여부, 기타특이사항을 yhc0670@naver.com로 신청

참가비

- 학점수강생 : 수업료15만원 + 캠프신청비(교재, 숙식포함)
- 학점비수강생 : 캠프신청비(교재, 숙식포함)

* 캠프신청비	기숙사 거주	외부 거주
1차 캠프신청기간	4만원 (1만원 할인)	2만원
2차 캠프신청기간	5만원	3만원
3차 캠프신청기간	6만원	4만원

1차 캠프 신청 기간 - 11주차
2차 캠프 신청 기간 - 12주차
3차 캠프 신청 기간 - 13주차 : 11월 28일(목) 자정까지

* 계좌이체 하나은행, 505 910305 94307, 예금주: 고희진

문의

양진규TA 010 6241 2670

WORLDVIEW NEWS

[총회 공고] 2013년도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정기총회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에서 2013년도 총회를 실시합니다. 2013년 한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마감하며 2014년 임원 임명 및 신년의 비전을 점검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통역회 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순서가 준비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셔서 더불어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3시
- 장소 미정(홈페이지 공고 예정)
- 참석자 본 단체 정회원 및 임원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이사회회의 공고] 2014년 1차 이사회의 개최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에서 2014년 1차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해당 이사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년 1월 21일(화)
- 장소 엘타워(서초구 양재동)

[신규사업 : 분야별 기독교세계관 필독목록] 기독교세계관 알고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편리한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면서 회원분들의 기독교세계관 공부를 위한 <분야별 기독교세계관 필독 목록>이 게시됩니다. 전공 교수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영역별로 꼭 읽어야 할 기독교세계관 필독서 리스트를 정하였습니다. 2014년 월 드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본지에 영역별 소개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서 함께 읽고 나누는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작업을 도와주실 발렌티어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사무국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영상캠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0기 영상캠프가 12/26(목)-28(토) 2박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바른 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미디어의 군사 양성을 위해 기도와 후원의 손길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사무국 보고

- 11/16 많은 분들의 참여로 제30회 기독교학술통역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11/2 오픈강좌 01. 창조,타락,구속(신국원, 총신대교수), 11/30 오픈강좌 02. 하나님나라(이승구, 합신대 교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오픈강좌는 2014년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앙과 학문>

세트 판매 및 2014년 1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4년 1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세트 판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기관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9권 1호 발행일 3월 31일
19권 2호 발행일 6월 30일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아직도 모바일 월드뷰를 모르세요?

m.worldview.or.kr

지난 호 월드뷰를 보고 싶다면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모집] 대학로에 선 기독 대학원생

이 시대 깨어 있는 대학원생의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매달 두번째 금요일 오후 3시,
성균관대학교 호암홀에서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들의 모임을 꾸리려 합니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현재 각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관심있는 대학원생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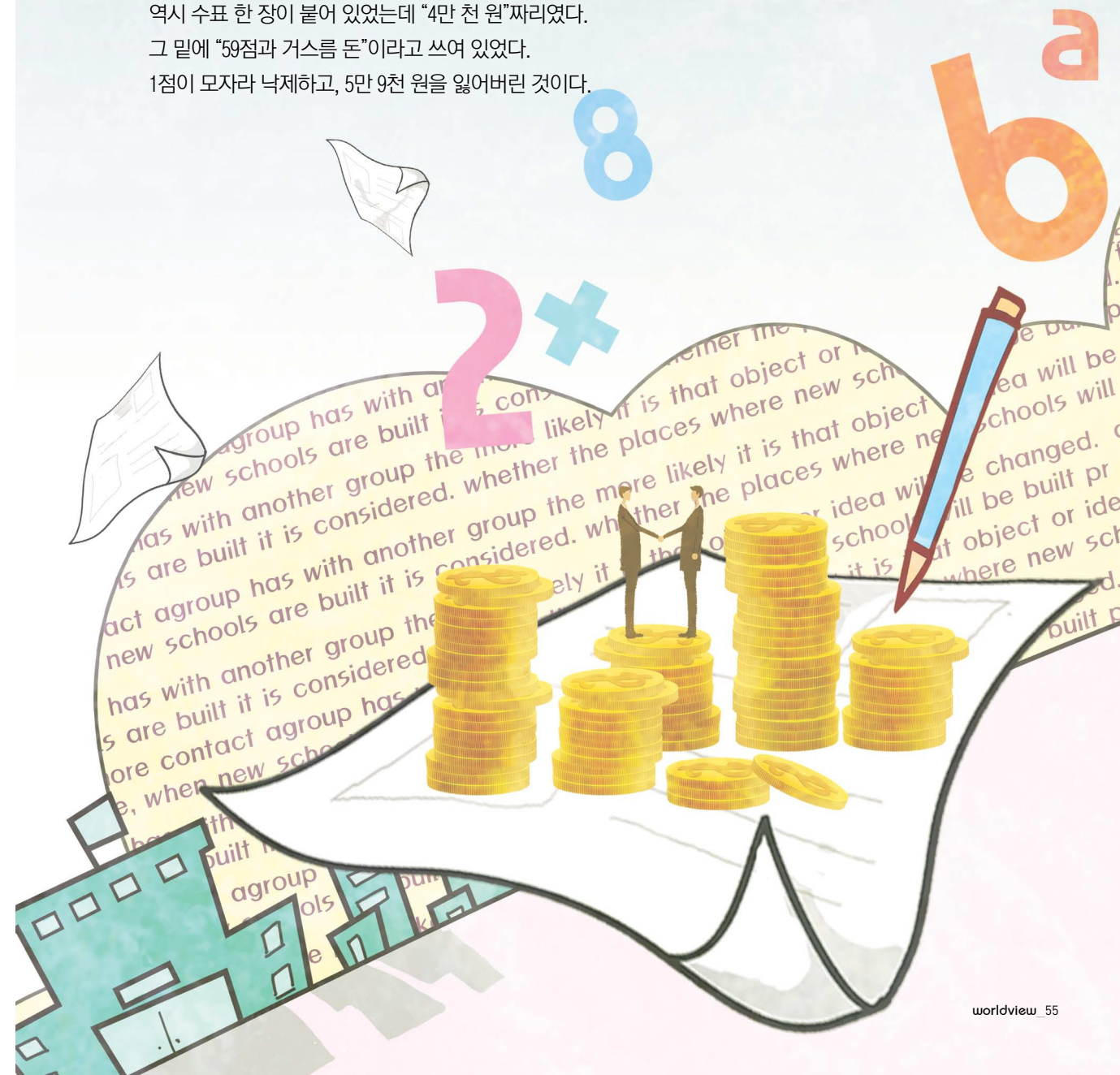
담당 : **신효영** 간사 (info@worldview.or.kr, 02-754-8004)



"밀진 거래"

부잣집 아들 대학생이 게임이나 하고 여학생 공부니만 따라다니다가 학년말 시험을 치게 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합격 학점을 받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
자기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시험지 뒤편에 핀으로 붙이고
그 밑에 "1학점에 천 원"하고 썼다.

얼마 후 답안지가 되돌아왔다.
역시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4만 천 원"짜리였다.
그 밑에 "59점과 거스름 돈"이라고 쓰여 있었다.
1점이 모자라 낙제하고, 5만 9천 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플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www.facebook.com/ohauscorp

"생생한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주세요"

